

# 수원시의 스티로폼 재활용 모범 사례



- '97년 부지 9,000평, 연건평 3,200평의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장 건설
- 감용기 5대 설치하여 2001년 잉고트 351톤 생산, 961만원 수익 올려
- 2001년 11월부터 스티로폼 식품 포장 용기(PSP)도 재활용 품목 지정하여 분리수거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는 선진 청소행정이 요구되었고 97년 4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인터체인지 부근에 부지 9,000평 연면적 3,200평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재활용선별장을 건설하여 재활용품의 철저한 세분류를 통한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였고 아울러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티로폼 재활용을 위하여 수원시는 재활용 선별장내 80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감용기 5대를 설치하여 수거된 스티로폼을 잉고트 형태로 재활용, 2000년에는 319톤을 생산하여 961만원의 세수를 올렸고, 2001년에는 351톤에 1,335만원의 세수를 중대시켰다.

특히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PSP)는 재활용 가능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감용기에 투입시 기계에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감용기 고장의 원인이던 투입부 틈새 끼임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투입부분의 스크류방식을 팬 송풍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2001년 11월부터는 PSP용기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수원시의 스티로폼 재활용이 활성화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수원시는 스티로폼과 PSP용기를 비롯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시민들이 냉장고에 부착하여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냉장고 부착용 홍보물 21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기존 홍보전단이나 리플렛 등 1회성 홍보의 한계를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세세한 홍보와 지원 재활용에 대한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일반주민은 물론 회사원, 학생, 시의원,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세분류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1일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2001년에는 51회 2,000여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얻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수원시 생활 폐기물 재활용센타 건립의 일등공신 김정수 수원시 청소행정과장



수원시가 전국에서 스티로폼 재활용에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수원시 재활용센타 건립의 일등공신이 기도 한 청소행정과 김정수 과장에게 2002년 스티로폼 재활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소감을 들어보았다.

“전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서 스티로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여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분발해서 스티로폼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활용 업무는 자자체의 미래와 환경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김과장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김과장이 청소과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 2월 수원시청 청소계장으로 부임한 그는 환경미화원과 함께 민원해소를 위해 쓰레기 수거 확인작업을 하던 중 할머니 한분이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철인데 고생한다”며 일음이 담겨있는 수박회자를 주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청소과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는 국내에서 누구도 염두내지 못한 대규모의 재활용시설을 구상하고 일본과 독일의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연구하여 수원시 재활용 센타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건립에 따른 예산문제 등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수원시 재활용센터는 규모나 운영면에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는 시설로 현재 수원시는 재활용에 있어 모범 지자체로서의 명성과 함께 재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는 만족하고 있었다.